



SKBA(SK Battery America, Inc.)의 공사 현장.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美 '배터리 공장' 투자 확대

“3세대 전기車 시대 연다”

美서 전기자동차 판매 추가 수주
2021년 중순부터 시제품 생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에 대한 연내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현지에 건설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과 함께, 급성장하는 미국 시장을 감안해 단계별로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1차 투자에 벼금가는 수준의 연내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판매될 전기자동차를 추가 수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밝힌 50억달러 투자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연 9.8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기공식 이후 커머스 시 일대 약 34만평 부지에 건설 중인 이 공장은 2021년 하반기 기계적 완공을 마치고 2022년 초 양산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접목해 본격적인 '3세대 전기차' 시대를 열 계획이다. 3세대 전기차는 한 번 충전만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어 내연기관 차량과 대등한 주행거리를 갖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주행에도 중간 충전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중순부터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2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정장 대신 캐주얼… 최태원 SK회장, 신입사원들과 파격소통

“젊은 패기로 공동체 행복추구”

그룹신입사원 교육- 회장과의 대화
패널 토론 없애고 직장 노하우 전수
즐겨보는 유튜브 소개 등 질문 답변

최태원 SK회장이 신입사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가지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SK는 15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그룹 신입사원 교육-회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 주요 경영진들이 신입 사원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자리다. 1979년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이 시작한 이후 40여년간 이어왔다. 최 회장과 SK수페스 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 SK㈜ 장동현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에는 격식을 파괴해 벽을 허물어 뜨는데 중점을 뒀다. 무대와 객석간 거리를 7m(미터)에서 2미터로 대폭 줄였고, 복장도 정장 대신 캐주얼 차림으로 바꿨다. 경영진 패널 토론을 없애고, 선배 구성원이 직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코너로 대체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2020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신입사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SK

최 회장과 대화도 사전 각본이 불가능한 실시간 SNS,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맛집과 감명 깊게 읽은 책, 즐겨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했다.

최 회장은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행복추구를 위한 신선한 자극을 불어 넣어달라. 그런 실천이 SK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추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돈, 노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측정하고,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어준 주변 모든 분들, 특히 부모님께 반드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조대식 SK수페스 추구협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충분히 즐기고, 또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더욱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15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개최된 비상경영 선포식 현장

이용배 “수익성 중심 운영… 내실경영 추진”

〈현대로템 사장〉

현대로템 비상경영위원회 구성

현대로템이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고 경영 위기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15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영쇄신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6년 당기순이익 기록 이후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

다.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선행 관리 위주의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내실 경영을 추진해 지속경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에어부산, 인천-청두 노선 신규 취항

정기 항공편 주 3회 운항

에어부산이 인천-청두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에어부산은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 중국 청두로 가는 정기 항공편을 주 3회 운항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청두 노선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다. 해당 노선에는

195석 규모의 에어버스 A321-200 항공기가 투입된다. 이번 인천-청두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1시 20분에 출발해 청두 왕류국제공항에 다음날 오전 3시 10분 도착한다. 또한 귀국 편은 현지에서 오전 4시 1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8시 5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 50분이 소요된다.

/김수지 기자

‘성능·효율·디자인’ 삼박자에 2000만원대 가격 ‘화룡점정’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다양한 개성·라이프스타일 반영

한국지엠 쉐보레가 '성능·효율·디자인' 삼박자를 갖춘 신형 모델 트레일블레이저를 출시했다.

쉐보레는 1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쉐보레의 새로운 글로벌 SUV '트레일블레이저'를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디자인은 다양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한 층 짙어졌다. 보다 대담해진 쉐보레 특유의 듀얼 포트 그릴을 적용한 전면부는 크롬을 통해 상하를 구분하고 하단의 매트한 재질과 하이글로시 블랙을 조합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수납 공간도 매력적이다. 최대 전장 4425mm, 최대 전고 1660mm, 전폭 1810mm의 차체 크기를 자랑한다. 2640mm의 휠베이스 역시 급을 뛰어 넘어 한층 넉넉한 공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전측면.

을 확보해 트렁크 용량은 460L이다. 6 대4 비율로 풀 폴딩되는 2열을 접으면 최대 1470L까지 확장된다.

고강성 경량화 차체를 적용해 주행 성능과 연비를 향상했다. 차체는 기가 스틸 22%를 포함한 78%의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강성을 확보한 세이프티 케이지를 완성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엔진은 두 종류로 1.2리터 가솔린 E-터보 프라임엔진(최고출력 139마력, 최대토크 22.4kg·m)과 1.35리터 가솔린 E-터보 엔진이 탑재된다. E-터보 프라임 엔진과 E-터보 엔진은 각각 복합연비 13km/L, 13.2 km/L의 우수한 복합연비를 실현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은 ▲LS

1995만원 ▲LT 2225만원 ▲Premier 2490만원 ▲ACTIV 2570만원 ▲RS 26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나에게 딱 맞는 검색어, AI가 알아서 ‘척척’

네이버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요' 적용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요(RIYO)'가 적용되는 급상승검색어 카테고리가 확대된

다.

네이버는 16일부터 리요의 적용 카테고리를 ▲시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영역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11월 말 급상승검색어 차트 노출 여부를 결정한다.

어 서비스에 리요를 처음 적용해 검색어 순위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도록 한 바 있다. 리요는 검색량이 급상승한 검색어와 이용자가 설정한 주제 카테고리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뒤, 개인별 설정 기준에 맞춰 급상승검색어 차트 노출 여부를 결정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